

공기하는 의미 요소의 특징에서 본 「목욕」의 한일 이미지 대조연구*

-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바탕으로 -

김혜연**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Japan images of 'Bath' from the characteristics of cooccurrence meaning el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ext mining

This paper considers the images of 'bath' in Korea and Japan based on text mining. It analyzes the elements,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verbs, nouns, adverbs, and adjectives, which co-occur with 'bath' within a sentenc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 ① 'Bath' mainly co-occurs with verbs such as '入る', '入れる' and '浸かる' in Japanese whereas it is often used with '하다', '시키다' and '씻다' in Korean.
- ② It shows a high frequency of co-occurrence with '露天', '湯' and '温泉' in Japanese whereas it tends to co-occur with nouns such as '물', '아기' and '때' in Korean.
- ③ It is often used with such adverbs as 'ゆっくり', 'ゆったり' in Japanese and tends to co-occur with '자주', '매일' in Korean.
- ④ In both Japanese and Korean, it often co-occurs with adjectives related to temperature such as '熱い/뜨겁다', '温かい/따뜻하다' and '冷たい/차갑다'.

This paper reveals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① to ④ above, in Korean and Japanese, 'bath' has a common image of "washing with hot water". However, this paper further clarifies that 'bath' has the image of 'baths (hot springs and bathtubs)' in Japanese whereas it has the image of 'showers' in Korean.

Field : Semantics

Keywords : Text-mining, Bath images, Co-occurrence, Korea-Japan contrast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6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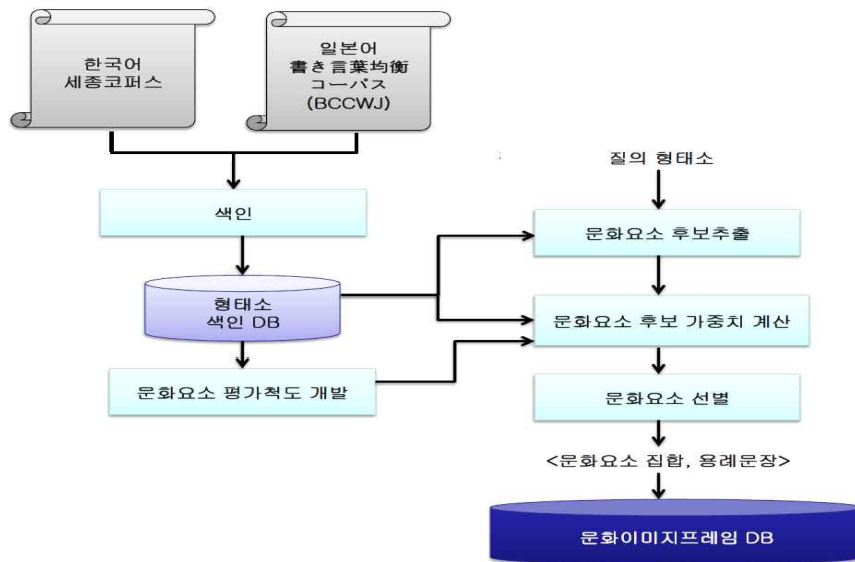
** 성결대학교 조교수, 일본어학

1. 머리말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농경사회였던 한국은 호미, 삽과 같은 농사 관련 언어들이 발달되어 있고, 눈이 많이 내리는 북극에서는 눈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경어가 발달되어 있지만, 나이를 중시 여기는 문화인 한국에서는 절대 경어가, 内와 外를 구분하는 일본에서는 상대 경어가 쓰이고 있다.

본 연구는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는 입장에 서서, 한국과 일본의 목욕에 대한 이미지를 언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목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는 때를 미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다. 이에 반해, 일본의 「목욕」 하면 온천 등이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주관적인 이미지이다. 이런 주관적인 이미지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준서(2019)의 한·일문화요소추출시스템을 이용하여, 한일의 「목욕」의 이미지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2019)의 한·일문화요소추출시스템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텍스트마이닝이란,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기술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2019)의 한·일문화요소추출시스템은 <그림1>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1> 이준서(2019:129)의 텍스트마이닝 워크플로우

이(2019)에서는 색인 단계는 코퍼스의 형태소 분석 정보들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며, 검색 단계는 공기(共起) 정보를 기반으로 질의 형태소의 문맥 형태소들을 문화요소 후보로 간주하고 후보들의 가중치를 계산하고 랭킹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1) 이준서(2019)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로서 한국어 코퍼스는 「세종 코퍼스」, 일본어는 「書き言葉均衡 코퍼스 (BCCWJ)」를 사용하고 있다.

(2019)는 문화 추출시스템을 이용하여, 한일 이미지 대조와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공기(共起)하는 문 의 요소를 바탕으로 공기하는 요소를 품사별로 분석한다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일의 목욕문화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이(2019)와는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의 목욕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일본어 코퍼스에서는 「風呂」, 한국어 코퍼스에서는 「목욕」을 질의 형태소로 설정하고, 이들이 들어간 문장에서 이들과 공기(共起)하는 요소와 그 요소들의 공기 빈도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의 「목욕(風呂)」의 이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바탕으로 「風呂」와 공기하는 문 의 요소, 「목욕」과 공기하는 문 의 요소를 비교 분석한다면, 객관적인 한일 목욕문화에 대한 이미지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2.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風呂」 「목욕」의 분석 결과

이준서(2019)의 한·일문화요소추출시스템에서 「風呂」와 「목욕」이 사용되고 있는 문장에서 공기(共起)하고 있는 요소의 상위 순위 10개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1>과 <표2>와 같다.

본고에서 말하는 공기(共起)란, 「風呂」 「목욕」이 쓰여진 문장에서 함께 쓰이는 모든 요소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1)에서는 「風呂」가 들어간 문장에서 함께 쓰인(共起する) 「でも」 「こうして」 「ふたり」 「入る」 「悪い」 등을 말한다.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경우도 (3)에 「목욕」과 함께 쓰이고 있는 「우리 나라」 「중국」 「뜨겁다」 「물」 「하다」 「있다」 「아프다」 「부위」 등이 모두 공기(共起) 요소이다. <표1><표2>의 공기 요소 및 순위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風呂」 「목욕」이 들어간 문장 속에서 함께 쓰이는 요소를 추출하고 그 순위를 배열한 결과이다. 상술했듯이,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는 본고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검색 요소와 함께 쓰이고 있는 요소의 순위가 높다는 것은 검색 요소와 관련성이 깊다는 의미로 파악하고 분석한다.

<표1> 「風呂」의 공기 요소 및 순위

순위	요소	품사	t-점수
1	入る	VVG	32.52108
2	露天	NNGG	22.950987
3	入れる	VVG	17.173775
4	湯	NNGG	14.257017
5	温泉	NNGG	10.841227
6	寝る	VVG	10.5000725
7	洗う	VVG	10.156819
8	トイレ	NNGG	9.11366
9	シャワー	NNGG	8.80187
10	浸かる	VVG	8.78319

<표2> 「목욕」의 공기 요소 및 순위

순위	요소	품사	t-점수
1	하다	VV	7.623971
2	물	NNG	6.3821115
3	시키다	VV	6.082892
4	아기	NNG	4.846035
5	옷	NNG	4.57696
6	몸	NNG	4.343463
7	후	NNG	4.0617523
8	때	NNG	4.0329943
9	피부	NNG	3.7450674
10	씻다	VV	3.4624708

<표1>은 질의 형태소 「風呂」로 검색한 결과이며, 「風呂」와 한 문장 속에서 가장 많이 함께

쓰이고 있는 요소는²⁾ 「入る(들어가다)」, 그 다음이 「露天(노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2>에서는 질의 형태소 「목욕」으로 검색한 결과이며, 「목욕」과 한 문장 속에서 공기(共起)하고 있는 요소 1위는 「하다」, 2위는 「물」로 나타났다.

- (1) 「でも、たまには、こうして、ふたりで、お風呂に入るのも悪くないわね。(LBa9_00048^22250)³⁾
- (2) 川石で囲った露天風呂では新鮮な森の空気に目にしみる緑が味わえる。(LBk2_00048^10385)
- (3) 우리 나라나 중국에선 예로부터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아픈 부위를 주물러 통증을 치료해 왔다.(BTAA0013^4412)
- (4) 따라서 목욕 등을 위해 받아 놓았다가 쓰지 않고 버리는 물이 있다면 이런 물은 세탁에 이용하는 게 좋다.(BTAA0013^821)

<표1><표2>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공통적으로 공기하는 요소로는 「씻다/洗う」와 「お湯/따뜻한물」로, 이를 통해 한일 모두 「목욕(風呂)」에서는 「물로 씻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5) 毎日お風呂に入り、セッケンでよく洗ってください。(LBr3_00082^21272)
- (6) 목욕을 시킬 때마다 비누로 씻기 뒤, 젖은 가제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준다.
(BTBD0236^3855)
- (7) お風呂の湯がまろやかになり、お肌がしっとりします。(OC09_01102^305899)
- (8) 더운 물도 없어 이 추운 겨울에 냉수로 목욕을 하구요.(BTEO0092^4279)

(5)(6)은 「風呂(목욕)」과 「洗う(씻다)」가 함께 쓰인 용례이고, (7)(8)은 「湯(더운물)」과 공기하고 있는 용례이다.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露天(노천)」, 「温泉(온천)」, 「浸かる(담그다)」가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어에서는 「시키다」 「아기」 「몸/피부」 「때」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랭킹의 차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목욕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텍스트마이닝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한일 목욕 이미지의 차이점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세운다.

공통점: 물로 씻는다

차이점: 한국- 샤워 이미지 일본- 탕 이미지

<그림2> 한일 목욕 이미지 가설

본 연구에서는 <표1>과 <표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공기 요소를 품사별로 나눠 그 특징을 분석하여, 한일 양국의 「목욕(風呂)」에 관한 이미지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 고찰한다.

2) t-점수가 높을수록 순위는 높아진다.

3) 텍스트마이닝 한 결과의 출처 표기이다.

3. 공기(共起) 요소 특징에서 본 「風呂」 「목욕」의 이미지 고찰 사별 특징-

3.1 「風呂」 「목욕」과 공기하는 동사의 특징 분석

본 절에서는 「風呂」 「목욕」과 한 문장에서 함께 쓰이고 있는 요소 중 동사에 한정하여 그 특징을 살피고, 한일 목욕의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표3〉은 이(2019)의 한·일문화요소추출시스템에서 「風呂」 「목욕」과 공기하고 있는 동사와 그 공기 순위를 추출한 결과이다.

〈표3〉 「風呂」 「목욕」과 공기하는 동사 및 순위

순위	동사	t-점수	순위	동사	t-점수
1	入る	32.52108	1	하다	7.623971
2	入れる	17.173775	2	시키다	6.0828923
3	寝る	10.5000725	3	씻다	3.4624708
4	洗う	10.156819	4	가다	2.809946
5	浸かる	8.783198	5	자다	2.7654717
6	上がる	8.627107	6	나오다	2.6513314
7	返る	7.985815	7	갖추다	2.6175916
8	出る	6.9199133	8	마치다	2.5347064
9	使う	6.873935	9	피하다	2.460302
10	浴びる	6.614652	10	먹이다	2.4491787

〈표3〉에서 우선, 일본어의 「風呂」와 공기하고 있는 동사를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入る(들어 가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9) 冬は風呂に入るとき脱衣室が寒いと感じ、夏は脱衣室に出るとまた汗が出てしまいます。

(LBg5_00034^27408)

(10) 食料品を買い込んでから熱いお風呂に入るのだ。(LBk9_00022^49444)

「入る」다음으로 함께 많이 쓰이는 동사는 「入れる(넣다)」인데, 「風呂」와 「入れる」가 공기하고 있는 문장을 보면, 「入れる」하는 대상이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11)(12)의 「みかん」 「入浴剤」와 같이 탕 안에 넣는 물건이었고, 또 하나는 (13)(14)의 「子供」 「赤ちゃん」과 같은 (어린) 사람이었다.

(11) ゆず風呂ってありますが、みかんをお風呂に入れても良いのでしょうか？(OC09_03505^325337)

(12) 入浴剤を入れてお風呂に入ったり、ニベアを塗ったりしていますが、まだまだとても痒い。

(OC09_11866^399674)

(13) 6ヶ月の子供ですが、お風呂は何時ぐらいに入れたらいいのでしょうか？(OC10_00138^434804)

(14) 2ヶ月の赤ちゃんですが、昼間もお風呂に入れ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か？

(OC10_01572^449746)

또한, 「浸かる(담그다)」도 순위가 높다.

(15) 風呂に浸かってゆっくり考え事でもしようと思うのに、いつもできません。(OC14_04925^614549)

(16) 昨日もゆっくりにお風呂に浸かって温まって布団に入ったら朝までポカポカでした~♪

(OY14_35097^573858)

〈표3〉의 「風呂」가 (9)~(16)과 같이 「入る(들어가다)」 「入れる(넣다)」 「浸かる(담그다)」와 함께 공기하는 것에서, 일본의 「風呂(목욕)」은 탕 문화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표3〉의 한국어의 공기 순위를 보면, 「하다」가 가장 높다.

(17)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는 목욕을 하다가도 뛰쳐나와 그렇게 해줄 사람입니다. (BTEO0339^605)

또한, 「씻다」가 두 번째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목욕」과 「씻다」가 함께 쓰이고 있는 문장을 보면, (18)(19)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욕」은 전신을 씻는 행위라고 생각되어진다.

(18) 돈이 비싸니 온몸을 목욕할 수는 없고 프랑스로 하체 일부만을 씻기로 하자. (BTGO0345^1887)

(19) 목욕이나 발을 씻을 때는 온도의 변화가 심한 것을 피한다. (BTHO0386^460)

또한, 〈표3〉에서 「목욕」은 「시키다」와 공기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 문장은 (20)(21)과 같이 누군가(특히 아이)를 목욕시키는 응례였다.

(20) 아무튼 피로도나 그때그때 아기의 신체 상황을 잘 살펴서 목욕을 시키면 된다. (BTHO0429^2460)

(21) 이럴 때는 목욕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젓을 먹인 후나 보충식을 먹인 후 바로 목욕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BTHO0429^2876)

(20)(21)에서 알 수 있듯이, 아기는 목욕을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시키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표3〉의 일본어 「風呂」의 2위 「入れる」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의 「風呂」의 경우도 「入れる」와 함께 자주 쓰이는데, 「赤ちゃんを風呂に入れる」의 「入れる」는 한국어로 해석하게 된다면, 「시키다」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22) a. 6ヶ月の子供ですが、お風呂は何時ぐらいに入れたらいいのでしょうか? ((13)')

b. 6개월 된 아이인데, 목욕은 몇시정도부터 시키는(하)는 것이 좋을까요?4)

4) 저자가 번역하였다.

3.2 「風呂」 「목욕」과 공기하는 명사의 특징 분석

〈표4〉는 「風呂」 「목욕」과 함께 쓰이는 명사를 이준서(2019)의 한·일본화요소추출시스템에서 추출한 결과이다.

〈표4〉 「風呂」 「목욕」과 공기하는 명사 및 순위

순위	명사	t-점수	순위	명사	t-점수
1	露天	22.950987	1	물	6.3821115
2	湯	14.257017	2	아기	4.846035
3	温泉	10.841227	3	옷	4.57696
4	トイレ	9.113662	4	몸	4.343463
5	シャワー	8.80187	5	후	4.0617523
6	体	8.2115	6	때	4.0329943
7	部屋	7.588631	7	피부	3.7450674
8	浴場	7.386487	8	온도	3.3874435
9	家	7.3036714	9	영양	3.2158291
10	サウナ	7.240941	10	목욕탕	3.1360564

〈표4〉에서 우선, 일본어의 「風呂」와 공기하고 있는 명사의 특징을 살펴 보면, 「露天(노천)」 「湯(따뜻한 물)」 「温泉(온천)」이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23) その名のとおり、小さな丘の上に建った中規模の温泉宿で露天風呂もあり、「少し寒いかもしれません」と言われながら何度もつかった。(LBe6_00001^23406)

(24) 夕方になると、山川らは、そこらじゅうにある露天風呂に入って汗を流す。(LBi9_00060^49505)

(23)(24)에서 알 수 있듯이, 「風呂」와 「露天」이 한 문장 속에서 같이 쓰일 때는 「露天風呂」로써 「露天」이 「風呂」의 한 종류로써 쓰이고 있었다.

일본어의 「風呂」와 공기하는 명사 1위는 「露天」이었는데, 한국어에서 「露天」의 번역 「노천」 「노천욕」의 순위(품사에 관계없는 총 순위)를 검색해 보았다.

〈표5〉 「목욕」과 「노천/노천욕」의 공기하는 순위

순위	요소	t-점수
141	노천	1.4049362
339	노천욕	0.9994752

〈표5〉에서 한국어에서 「목욕」이 「노천」 「노천욕」과 공기하는 경우는 일본어에 비해 현격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함께 쓰이고 있는 명사는 (25)(26)와 같이 「お湯(따뜻한 물)」이다.

(25) お風呂のお湯の温度はリラックスと深い関係があります。(LBp5_00052^36105)

(26) 電話連絡を終えて、さて風呂へ入ろうと蛇口をひねったが、一向にお湯が出てこない。

(LBq3_00050^18854)

「風呂」가 함께 쓰이는 명사의 1, 2위인 「露天」과 「湯」는 깊은 연관이 있다. 「露天」은 밖에서 하는 목욕으로, 일반적으로 뜨겁거나 따뜻한 물(お湯)에 몸을 담근다.

또한, 공기 요소 3위인 「温泉」은 지열을 이용하여 지하수로 목욕을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장소를 말한다.

(27) 夜、温泉のお風呂に入って、もう、おやすみ…のはずが、秋雪の眼は爛々と輝いている。

(OB6X_00231^217515)

(28) 汗を流しに、温泉に行こうと思ったら、運よく貸切露天風呂が空いていたので、そちらに行くことに。(OY11_05071^305015)

〈표4〉의 「風呂」와 공기하는 상위 요소, 「露天(노천)」 「温泉(온천)」 등에서도 일본의 「風呂」에 대한 이미지는 탕 목욕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어에 비해, 〈표4〉에서 한국어 「목욕」과 공기하고 있는 명사 순위 상위를 살펴 보면, 「물」 「아기」 「때」 「뭍」 등이다.

(29) 또 아기를 목욕물에 넣는 것이나 꺼내는 것도 역시 속도다. (BTHO0429^2238)

(30) 목욕시킬 때도 물의 온도를 좀 높여 뜨겁게 해주면 영양이 소모된다.

(BTHO0429^2163)

(29)(30)과 같이 「목욕」이 「물」과 가장 많이 함께 쓰이는 것은 목욕은 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공기 순위 2위가 「아기」인 것은 예상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표3〉의 공기하는 동사 요소 2위가 「시키다」인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1) 언제 목욕을 시킬 것인가는 아기의 상황을 보아 정한다. (BTHO0429^2457)

(32) 목욕을 시킬 때도 주의를 집중시켜 기를 모으면, 아기가 긴장을 풀 때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다. (BTHO0429^2963)

한국어의 「목욕」과 공기하는 명사 중 「아기」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어의 「赤ちゃん(아기)」 「子供(어린이)」을 검색해 보았더니, 각각 전체(품사 관련 없음) 순위는 〈표6〉과 같이, 각각 73위, 98위였다.

〈표6〉 「風呂」와 「赤ちゃん/子供」의 공기 순위

순위	요소	t-점수
73	赤ちゃん	4.418114
98	子供	3.914556

〈표6〉과 같이 일본어의 「風呂」 문장에서도 아기(어린이)는 등장하지만, 한국어에 비하면, 공기 빈도는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공기 요소 및 순위의 특징 중 하나가 (33)(34)과 같이 「때」와 함께 쓰이는 것이었다.

(33) 물이 공급된 시간은 단 30분이었으나 소량의 물로 재빨리 목욕하는 일에 익숙해진 죄수들의 목은 𠵼를 벗기기에는 넉넉한 여유였다. (BTEO0092^4726)

(34) 몸에 𠵼가 끼어서도 안 되기에 목욕을 한다. (BTHO0105^3693)

한국어의 「때」는 「목욕」과 공기하는 빈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 일본어의 「垢(때)」의 공기 빈도(품사에 관계없는 총빈도)는 낮았다.

〈표7〉 「風呂」와 「垢」의 공기 순위

순위	명사	t-점수
205	垢	2.9314482

또, 〈표4〉에서 「体」 「몸」은 각각 6위, 4위로 「風呂」 「목욕」과 공기하는 순위가 높았다. 이는 목욕을 하는 이유가 모두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35) 風呂から上がったとき一瞬くらいはキレイな𠵼でいたいもんだ。 (OC14_10845^655450)

(36) 熱いお風呂で𠵼を温めてから寝酒を飲みに行きました。 (OY03_07918^83369)

(37) 이쯤되고 보니 목욕이 𠵼을 청결하게 한다는 그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차차 레크리에이션의 성향을 띠어가는 것 같다. (BTHO0119^2905)

(38) 사실 목욕의 일차적인 목적이 𠵼을 청결케 하는 데 있다면, 그 이차적 목적은 바로 피로를 회복하는 데 있다. (BTHO0119^2907)

이상의 「風呂」가 공기하는 명사의 특징에서 일본의 「風呂」의 이미지는 탕 문화적인 것이 강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런 일본의 탕 문화의 이유는 일본의 난방방식과 겨울의 생활양식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오기노(2008)은 근대화 이전의 일본의 난방방식과 겨울의 생활양식이 일본의 목욕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근대화 이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풍을 중요시한 가옥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겨울에 통풍이 있어도 영향을 덜 받는 난방방식이 발달되어 왔다. 코타츠나 양키는 방 공기 전체를 데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을 데워주는 난방장치였다. (중략)

한편 가정용연료의 화석연료화가 끝난 1960년대에 들어도 일본의 난방방식은 과거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난방 방식을 고수하였다.(중략)

부분난방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한국처럼 방 공기 전체를 데워주는 나라에 비해 난방비는 덜 들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하게 된 것이다. 반면 고도경제성장 시기 이후 도시의 각

가정에도 목욕탕을 갖게 되면서 목욕을 자주하는 습관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일본인이라면 겨울철 잠들기 전에 반드시 목욕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오기노2008:47)

오기노(2008)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일본의 [부분난방 방식]은 일본의 목욕 문화를 탕 문화로 발달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샤워를 하는 것 보다는 탕에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잠드는 것이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런 일본의 탕 문화는 일본 특유의 목욕 시설인 湯沸かし器(물 끓이는 기계)를 일본 욕실에서 볼 수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湯沸し器는 <그림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욕조의 물을 따뜻하게 하여 탕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물 끓이는 기계이다.



(출처: <https://reneed-mito.storeinfo.jp/posts/6270610/>)



(출처: <https://item.rakuten.co.jp/uushop1/28506/>)

<그림3> 湯沸し器 이미지

이에 반해, 한국의 목욕문화를 살펴보면, 권예슬(2018)은 한국의 주택 구조의 변화가 한국의 목욕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1960년대 이전에는 전통 가옥 구조 내에서는 목욕의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부분욕이 발달했지만, 1960년대 이후로는 욕실 설비의 발전으로 인해, 전신욕을 쉽게,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또, 권(2018)은 지금의 주택은 아파트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1980년에는 아파트는 난방이 잘 되어 실내공기가 건조하고, 목욕탕 시설이 잘 갖추어져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하여,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아파트 피부병'이라는 표현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권(2018)은 산업화 이후 새마을 운동과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민들의 보건, 위생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오기노(2008), 권(2018)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부분난방 방식과 추운 날씨는 일본의 목욕 문화를 탕 문화로 발전시켰고, 한국은 주로 아파트 생활로 따뜻한 실내에서 지내며, 위생의 개념으로 샤워 문화가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3.3 「風呂」 「목욕」 과 공기하는 부사, 형용사의 특징 분석

이상, 오기노(2008), 권(2018)과 본 연구의 텍스트마이닝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는 난방방식과 날씨의 영향으로 탕 문화가 발전했고, 한국에서는 주로 아파트 생활이라는 주택사정과 새마을운동, 올림픽 유치 등의 영향으로 위생을 중시하는 샤워 문화가 발달했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風呂」 「목욕」과 공기하는 부사의 특징에서도 파악해 볼 수 있다.

〈표8〉 「風呂」 「목욕」과 공기하는 부사 및 순위

순위	형태소	t-점수	순위	형태소	t-점수
1	ゆっくり	7.2528176	1	자주	3.2045848
2	直ぐ	4.7108984	2	매일	2.9525065
3	ゆったり	4.222305	3	깨끗이	2.544192
4	さっぱり	4.02328	4	좀	2.0971582
5	中々	3.3239093	5	마침	1.8199916
6	たっぷり	3.0798297	6	반드시	1.754463
7	取り敢えず	2.8457801	7	차차	1.6835713
8	広々	2.695227	8	제대로	1.6195105
9	一番	2.6817417	9	못	1.4836615
10	一寸	2.6392758	10	언제	1.3842105

〈표8〉에서 일본어의 「風呂」와 공기하는 부사들을 살펴 보면, 「ゆっくり」 「ゆったり」가 각각 1,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ゆっくり」는 「천천히」, 「ゆったり」는 「느긋하게」이다.

- (39) したがって、ここは清潔好きな娘たちにゆずって、あとからゆっくりぬるめの風呂に入ったほうがリラックスできるというものです。(LBg4_00025^22536)
- (40) わたしは、身も心もほぐしてくれる熱いお風呂にゆっくりとつかりにいった。(LBk9_00155^67541)
- (41) 南アルプスの山懐に抱かれてゆったりとくつろげる展望風呂です。(OP51_00002^129415)
- (42) ふれあいさなだ館は、天然温泉の広々とした内風呂と露天風呂で訪れた皆さんにゆったりとくつろいでいただけます。(OP52_00001^130980)

(39)~(42)에서 「風呂」에서는 「ゆっくり(천천히)」 「ゆったり(느긋하게)」라는 이미지로, 이런 부사들은 「風呂」의 탕 문화와 어울린다.

이에 반해, 한국어의 「목욕」이 공기하고 있는 부사 순위 1, 2위는 「자주」 「매일」로 횟수와 관계있는 부사들로, 둘 다 모두 횟수가 빈번함을 나타낸다.

- (43)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목욕을 자주 한다.(BTGO0345^1873)
- (44) 만태가 목욕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니까요.”(BTEO0081^1814)
- (45) 물어보진 않았지만, 매일 목욕을 하고 매일 속옷을 갈아입을 것이다.(BTEO0339^397)
- (46)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내는 그 도가 심해져 더럽지도 않은 방을 매일 두 번 이상 걸레질했고, 한 번밖에 입지 않은 옷도 세탁기에 넣었으며, 목욕은 거의 매일했다.(BTEO0314^3226)

(43)~(46)과 같이, 「목욕」이 이런 부사들과 자주 공기한다는 결과는, 권(2018)의 한국의 목욕

문화가 위생을 중시 여긴다는 설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샤워는 그 빈도가 매일 하거나 자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탕 목욕을 매일 하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9〉 「風呂」 「목욕」 과 공기하는 형용사 및 순위

순위	형용사	t-점수
1	熱い	6.5922804
2	良い	4.416786
3	奇麗だ	4.3176
4	寒い	3.9221234
5	温かい	3.8125768
6	広い	3.2193282
7	軽い	3.0465512
8	遅い	3.0354884
9	痒い	2.9573386
10	冷たい	2.894872

순위	형용사	t-점수
1	뜨겁다	2.9578173
2	좋다	2.911829
3	덥다	2.5606558
4	더럽다	2.115432
5	시원하다	1.8255022
6	차갑다	1.5490407
7	거칠다	1.524195
8	심하다	1.4444932
9	따뜻하다	1.4284481
10	상쾌하다	1.3589206

〈표9〉를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온도에 관련된 형용사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7) 早く…早く部屋へ入って、熱い風呂に入り、死んだように眠りたい。(LBe9_00164^52893)

(48) 冷たい水での洗い物、風呂も復活！(OY03_08645^88905)

(49) 「温かいお風呂」に入って、今夜は二人だけでゆっくりできると思って来たのに」

(OB4X_00033^123691)

(47)~(49)는 목욕물(風呂)의 온도를 각각 「熱い(뜨겁다)」 「冷たい(차갑다)」 「温かい(따뜻하다)」로 설명하고 있다. (47)~(49)는 목욕물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50)은 목욕을 하는 이유를 「춥기 때문에」로, (60)에서는 목욕 후의 몸의 상태가 「따뜻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0) 寒いのでお風呂に入る。(OY14_40121^601879)

(51) 日向ぼっこをしてお風呂に入ったので体が温かい。(LBI7_00013^43252)

한국어의 경우도 일본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52)~(55)는 목욕물의 온도를 각각 「뜨겁다」 「덥다」 「차갑다」 「따뜻하다」로 나타내고 있다.

(52) 목욕을 하고 피로를 풀고 난 뒤 조금 더 일을 한다거나,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좀 뜨거울 정도의 탕속에 잠깐 몸을 담갔다가 나오는 게 효과적이다.

(BTHO0119^291)

(53) 더운 물도 없어 이 추운 겨울에 냉수로 목욕을 하구요。(BTEO0092^4279)

- (54) 여름에는 조금 **차가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피부 탄력성 유지에 도움을 주고, 겨울철에는 좀 더 따끈따끈한 온도가 쾌적감을 높인다. (BTAA0013^4368)
- (55)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목욕**도 도움이 되며, 숙면에 적절한 침실 온도는 섭씨 20도 전후. (BTAA0013^3296)

또, (56)(57)은 목욕의 목적이나 목욕 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56)에서는 목욕하는 이유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으며, (57)에서는 목욕 후의 상태를 「상쾌하다」로 나타내고 있다.

- (56) 그 후 나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욕탕 **목욕**도 했다. (BTBD0236^2678)
- (57) 어설픈게 향수를 뿌리느니 날마다 냉수로 **목욕**재계나 하는 편이 정신도 **상쾌해지**
고 건강도 향진(尙進)되지 않을까. (BTBF0265^751)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목욕 이미지에 대해 분석, 고찰하였다. 일본어의 「風呂」와 한국어의 「목욕」이 들어간 문장에서 함께 쓰이는 요소들, 특히 동사, 명사, 부사, 형용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품사별로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공기하는 동사는 일본어는 「入る」「入れる」「浸かる」 등과 함께 쓰이는 빈도가 높고, 한국어는 「하다」「시키다」「씻다」 등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 ② 공기하는 명사는 일본어는 「露天」「湯」「温泉」 등의 순위가 높고, 한국어는 「물」「아기」「때」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 ③ 공기하는 부사는 일본어는 「ゆっくり」「ゆったり」가 자주 쓰이며, 한국어는 「자주」「매일」 등과 같은 부사와의 빈도가 높다.
- ④ 공기하는 형용사를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熱い/뜨겁다」「温かい/따뜻하다」「冷たい/차갑다」 등과 같이 온도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①~④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목욕은 「물로 씻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욕(風呂)에 대해, 일본은 「탕 이미지」, 한국은 「샤워 이미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바탕으로 「風呂」「목욕」과 함께 쓰이는 요소의 특징 및 빈도 순위에서 한국과 일본의 목욕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앞으로는 한일 양국의 목욕문화 변천사 등 시대적, 사회적 배경 등에 주목하여 한일 목욕 이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 싶다.

【참고문헌】

- 이준서(2013) 「틀의미론(Frame Semantics)에 입각한 일본어 'ingestion' 동사의 '문화 이미지 프레임 (Cultural-Image-Frame)' 연구」 『일본연구』 20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pp.51-66
- 이준서·한경수(2016) 「다국어 '문화요소추출시스템(CEMS)' 개발 구상」 『일어일문학연구』 99 한국 일어 일문학 pp.289-304
- 이준서(2019)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ingestion_프레임의 한·일 "ingestibles" 에 관한 일고찰」 『일본어학연구』 62 한국일본어학회 pp.127-137
- 오기노 지히로(2008) 「현대 일본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일고찰-목욕과 난방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38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29-49

〈 要 旨 〉

共起する意味要素の特徴からみた「風呂」の韓日イメージ対照研究

- テキストマイニングの結果をもとに -

本稿では、テキストマイニングの結果から、韓国と日本の「風呂」に対するイメージについて分析、考察した。日本語と韓国語の「風呂」が入っている文章の中で共起している要素、特に、動詞、名詞、副詞、形容詞の特徴を分析した。品詞別にその特徴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になる。

- ① 日本語は、主に「入る」「入れる」「浸かる」などと、韓国語は「하다」「시키다」「씻다」などの動詞と共起する。
- ② 日本語は「露天」「湯」「温泉」の順位が高く、韓国語は「물」「아기」「따」などの名詞と共起しやすい。
- ③ 日本語は「ゆっくり」「ゆったり」、韓国語は「자주」「때일」のような副詞との共起が目立つ。
- ④ 日韓とも「熱い」「温かい」「冷たい」のような温度とかかわる形容詞とよく共起する。

本稿では上記の①~④の結果に基づき、韓国と日本の「風呂」は「水（お湯）で洗う」という共通のイメージがあるが、日本では「風呂（温泉、浴槽）」、韓国では「シャワー」のイメージが強いと述べた。

論文分野：意味論

キーワード：テキストマイニング、風呂のイメージ、共起、韓日対照

■ 김혜연(金惠娟)

성결대학교 조교수

khy@sungkyul.ac.kr

■投稿日	：	2020년	1월	15일
■審査開始	：	2020년	2월	5일
■審査完了	：	2020년	2월	19일
■掲載確定	：	2020년	2월	28일